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감사예배

인도자: 가족중

추석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기　　원 ····· 인 도 자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이 결실의 계절에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 ····· 다 같 이

성경말씀 ····· 빌립보서 2:1~5 ····· 인 도 자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설　　교 ·····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 맡 은 이

기　　도 ····· 맡 은 이

나눔시간 ····· 맡 은 이

① 가족별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감사한 것)
②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의 계획

찬　　송 ····· 559장 (통일찬송가 305장) ····· 다 같 이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통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559장(통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2절)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같이하여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원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마음과 생각, 사랑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 안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주 안에 하나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3절)

다툼이나 허영심이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다툼이나 자기 자랑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해와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여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섬길 때, 주 안에서 하나되는 참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와 칭찬으로 서로를 높이는 가정되기를 노력합시다.

셋째, 하나 됨은 결국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4~5절)

하나됨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성실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 이어지고 전달됩니다.
내 마음과 감정을 중심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된 것과 같이 명절 기간 우리 가족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복된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열과 반목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되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구원자이신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겸손한 마음을 받아 하늘 평안을 가정에 이루고 세상에 전하는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추석 가정 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담임목사 김정수

36663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옥동)

www.dowonch.com